

시울 주보

제2428호

2023년 1월 1일(가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명동성당 측면 패턴창 | 이남규 루가(1931-1993),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1981-1984(복원), 서울 명동대성당

입당송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제1독서

 민수 6,22-27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2ㄱ)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

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갈라 4,4-7

복음환호송

 히브 1,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루카 2,16-21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구요비 읍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 ‘나약함’ 안에 깃들어 있는 신비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교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며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축일의 성서적인 증언은 성모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 성녀의 기쁨에 찬 외침인 “내 주님(κύριος)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루카 1,43)에서 비롯합니다. 마태오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마태 1,18,23-7)라는 말씀에서 분명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일관되게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강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나자렛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심은 성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위격적인 특징은 ‘하느님의 자기 비우심(케노시스)입니다.(이브 콩가르 신학자)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온전히 인성을 취하시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간성이 지닌 온갖 허약함, 나약함이 하느님의 신적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전능(全能)함은 자신의 전무(全無)까지도 허용하

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제야 밝혀진 새로움은 인간의 나약함 또한 하느님의 모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위대함은 이 ‘나약함’이 타인과 외부 세계와 더 나아가서 하느님에게도 개방되어 서로 간의 관계성 안에서 자신을 풍요로움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위대함은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의 허약한 전 존재를 하느님께 온전히 개방하여 하느님의 신성 안에 참여하심에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안에서 인간이 자유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하느님의 신비에 내어 맡길 때 인간의 나약함이 위대함으로, 하느님의 신적 생명의 온갖 충만함으로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한 나약한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기까지….

여기에서 인간의 나약성의 특징인 죄스러움(罪性) 또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구원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로마 5,20)

2023년 새해에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부족함과 온갖 허물까지도 인간의 고귀함과 품격으로 받아들이고 힘차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웃 형제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따뜻한 긍정과 사랑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는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명동성당의 주보 성인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입니다. 제대 뒤편의 스테인드글라스는 로사리오 15단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며, 신자적 측면의 작품들은 패턴을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외부의 빛이 유리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내부로 들어와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염시태를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성모님의 일생이 곰곰이 생각하는 일상의 반복으로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고 세상과 조화를 이뤘던 것처럼, 성전의 스테인드글라스는 그 모범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작품
설명



| 내 유통기한은?

저는 비정규직 프리랜서입니다. 주로 방송 구성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탈북민, 결혼 이주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20대 후반, 긴 방황 끝에 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원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 미디어를 통해 널리 전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꾀은일도 힘든 줄 모르고 기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인데도 '개편'이란 이름으로 언제든 자리가 사라질 수 있었고, 어렵게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 작가 구인 게시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렸습니다. 면접도 수없이 봤습니다. 늘 지긋지긋한 구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구직의 경지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통조림 유통기한을 본 순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9년은 충분히 보 관할 수 있는 그 신뢰의 기간. 전 그 뚜껑에 찍힌 그 연도와 날짜에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공식품보다 짧고 불확실한 제 신세가 쓸쓸했고 하느님은 왜 저를 안정적인 직장에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불평했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고용 불안과 구직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고 감동적인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청년성서모임에서 한 그룹원의 나눔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빵을 만들던 사람이 사진에 흥미를 느껴서 사진을 찍다가 사진사가 되자,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사진 찍는



김정은 로사 | 방송 작가

제빵사인가, 빵을 굽는 사진사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것에 비길 수 있다는 나눔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직장을 다니는 신앙인'인가? 혹은 '신앙을 가진 직장인'인가? 말입니다. 전자라면 직장이 있건 없건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직장인으로 산다면 직장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마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 일을 하루아침에 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일을 몰아주기도 하시면서 직장을 성전 삼으려는 그 유혹을 깨우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반드시 일하거나 벌이를 위한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장이나 일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보내신 현장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 울타리 안에 있다면 제 유통기한은 통조림 따위에 비할 수 없이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는 오늘! 하느님은 저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빛으셨음을 믿고 언제나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희망찬 새해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우리들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아이들의 소중하고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스쿠터를 타고 아빠와 함께 집으로 갈 때가 제일 행복했던 준우(가명, 9세)는 이제 아빠 없이 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 준우는 엄마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더욱이 아빠를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래보다 작은 준우는 성장 발달 지연으로 매주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엄마와 준우 모두 힘든 시기였지만 공부방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버는 동안 준우를 걱정 없이 맡길 수 있고, 친구, 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준우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서(가명, 13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국가 대표 육상 선수가 되는 것인데요, 자신이 꿈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 공부방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서가 태어난 직후 엄마는 집을 떠났고, 아빠는 할머니께 예서를 맡겼습니다.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은 증조할머니까지 3대가 함께 사는 예서네는 그 누구보다 공부방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부모이자 친구가 되어준 공부방 사람들은 예서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부모의 부재나 맞벌이, 한 부모 및 다문화가정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혼자 외롭게 가족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이제 공부방에서 숙제와 끼니

를 해결하고, 놀이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 체험을 통해 꿈을 키우며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는 국가 보조금과 약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11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재계약을 앞둔 올겨울, 보증금 5천만원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만으로도 운영이 빠듯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서 5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결해야 함에도 아이들을 위해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줄 조리사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리사 인건비는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창 커가는 아이들을 하루 두 끼만 그것도 시락으로 때우게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그마저도 고마워하며 맛있다고 말해줍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공부방 안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춥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했던 공부방에서의 기억은 아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마음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안식처인 우리들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가 임대료와 인건비 걱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온정을 나눠주세요!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2년 12월 31일~2023년 2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우리들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씁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n_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독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과학, 철학 그리고 신앙의 말(言)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재밌는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교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며,
철학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며,
과학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조정래, 『황홀한 글감옥』, 36쪽)

저자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뜻은 이러합니다. 과학은 엄격하고 명확한 범위와 방법론 안에서 자신이 풀어낼 수 있는 것만 말하며, 철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굳이 꼬집어내어 어렵게 말하는 것이고, 종교는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일종의 신비의 영역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나름대로 종교, 철학, 과학의 특징을 단순화해서 절묘하게 표현한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 과학에 대해 갖고 있는 피상적 '이해'와 '오해'를 드러내는 듯합니다. 확실히 과학, 특히 자연과학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철저히 그 안에서만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한 엄격함과 명확함, 단순함은 한편으로 오늘날 자연과학의 눈부신 성공을 견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과학의 시야를 대단히 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이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그 강력하지만 제한된 도구를 이용하여 과학이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까지 말하려 합니다.

철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을 애써 꼬집어내어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학이 현실과 떨어진 고담준론으로 보이기도 하고 무의미한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생

각이나 경험, '상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깊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며, 그리하여 일상 저 너머에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철학의 말(言)은 필요한 말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말(言)입니다.



종교는 초월적인 것, 저 너머의 세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간의 말을 무한히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말(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되신 말씀을 믿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감히 말로 담을 수 없는 분으로 우리의 언어를 무한히 초월해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어, 하느님께서 누구이신지 남김없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분, 곧 사람이 되신 말씀 덕분에 우리는 감히 하느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 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이어질 열두 번의 연재를 통해 저는 신앙과 과학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향한 열망에서, 혹은 진리 그 자체에서 탄생하여 자라난 이 둘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며 또 어떤 면에서 다른지 말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철학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야말로 온전하게,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유일하게 신앙과 과학을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쉽지 않은, 그러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言)의 여정을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제56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요약)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 출발하기

담화문 전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참조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1테살 5,1-2). 이 말씀으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공동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공동체를 변함없이 지키도록, 그들의 마음과 발을 굳건하게 뿌리박게 하고 그들의 시선을 주변 세상과 역사의 사건들에 고정하도록 그 공동체를 격려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우리 세상의 가장 평화로운 부분조차 뒤흔들었고 취약함의 여러 형태를 드러낸 듯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깨어지기 쉬운 보물은, 형제자매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류애임을 깨달았고,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도전에 대처하려고 각자 개별 이익들을 뒤로하고 힘을 모았던 사회 단체들, 사립·공립 기관들, 국제 기구들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암흑의 시간이 끝났다는 희망을 감히 품었던 그 순간에도 끔찍한 새 재앙이 인류를 덮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죄한 희생자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고, 직접적인 영향에 놓인 이들만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 이차적 영향의 고통을 겪는 이들 사이에서도 모

든 이에게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불안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찾았지만, 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전쟁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들이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개별 문제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한 공중 보건을 보장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빈곤과 죽음을 초래하는 분쟁과 전쟁을 종식하는 활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데에 그리고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우기 위한 분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 시급히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면서, 불평등이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모든 이를 위한 식량과 품위 있는 노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주민과 우리 사회들이 내버린 이들을 환대하고 통합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느님의 무한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에 힘입은 이타심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관대하게 응답할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Franciscus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마태 5, 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모든 가정과 온 누리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부족함에 용서를 청하며, 아울러 새해에도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하느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새해 첫날은 ‘평화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평화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다운 평화는 단순히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는 평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존중과 참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과 전쟁,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불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는 평화의 필수 조건이요, 상호 존중은 대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미래의 평화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인식,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과 공동 책임의 인식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

을 배척하고 적대하기보다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함께 더 나은 삶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한반도 정세도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 다시 평화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겨레도 서로 존중하며 마주 보고 마음을 열어 참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형제적 대화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꿈과 희망으로 2023년 새해를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맞이합니다.

새해엔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한반도와 온 누리에 하느님의 평화가 더욱 정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까지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참다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오늘(1월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1931년부터 전 세계 교회의 보편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 1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날을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1월 8일(주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교육자들'

교육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어 경쟁보다는 형제애를 가르치고 특히 가장 어리고 힘없는 이들을 돕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3년 1월 7일 김영식 베드로 신부(54세)
- 2000년 1월 5일 박은종 요한 신부(40세)
- 2015년 1월 8일 최용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7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서울주보 신규 칼럼을 소개합니다

성경 칼럼 |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성경 공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40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풀이해 드립니다.

환경 칼럼 |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2개의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실천가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월 1회 연재)

성음악 칼럼 | 교회 내에서 태동하여 전통을 이어온 음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음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월 1회 연재)

도서 칼럼 | 교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더불어, 동시에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를 읽을 수 있는 새 코너입니다. 훌륭한 도서도 소개 받고 세상과 교회를 향한 통찰도 느껴보세요. (월 1회 연재)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제7회 가톨릭청년미술가회 정기전 <세인트그램>: 전관
전시일정: 12월28일(수)~1월2일(월)

사순부활 묵상곡을 위한 성음악 합창 심포지엄(성음악위원회)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분당, 청년, 장년 등)
때: 1월28일(토) / 접수 및 등록: 1월3일(화)~20일(금)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참조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림동)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서울평단협 탄소중립 실천 아카데미

때, 곳: 2023년 1월11일 · 18일 · 25일 매주(수) 19시~20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접수: 선착순 100명 / 무료수강: <https://bit.ly/3UupKE5>
문의: 02)777-2013(www.clas.or.kr)

1강	생태영성의 실천 과제로서 탄소중립	이재돈 신부
2강	탄소중립의 의미와 정책 및 실천	홍시찬 연구원
3강	탄소중립교회 실천과 과제	양기석 신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월례미사

때: 1월2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2023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혼인 예약 안내

7월~12월: 2023년 1월13일(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홀
추첨은 한 커플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 문의: 02)774-1784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산랑 · 산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녘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51차 미사 1월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서울대교구 연안 분당, 개성 분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복녘분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및 하루일정 전국 성지순례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일 첫째주(화) 1월3일 · 2월7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 하루일정 전국 성지순례

때: 1월15일(일) 오전 8시 출발(명동대성당 집결)
곳: 서울의 순교성지, 순례지 및 교회사적지
신청: 1월2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2만5천원(중식, 교통비, 유인물)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반장·구역장·레지오 단원 1일 피정

곳: 살레시오회 교육관(신길동) / 수시 접수
문의: 02)828-3522 살레시오회 관구관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월1일~31일 / 문의: 010-4198-7970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때: 2월24일~25일·3월9일~10일 / 출발: 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버스공영주차장

비대면 심리독서모임 / 문의: 010-7241-2236

때: 2월 매주(월·토) 9시~12시 / 인원: 각 8명
주최: 톡징포교베네딕도수녀회대구수녀원

성공품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1월8일(월)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2023년 성모술술마음 치유대(對)피정

성모님 품에서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일 둘째주·넷째주(금·일) 1월13일~15일, 1월 27일~29일, 2월10일~12일, 2월24일~26일(2박3일)
회비 없음 / 문의: 010-3209-3955 성모술술마음

효산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월6일~9일·1월27일~30일·2월3일~6일·2월24일~27일,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1월14일(토)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1차	1월20일(금)~28일(토)	문의: 061)373-3001,
제112차	2월10일(금)~18일(토)	010-3540-9001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화요 성령기도회	매주(화) 18시30분~22시
치유 대피정	1월14일(토) 12시30분~17시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2월25일(토)~26일(일), 3월4일(토)~5일(일)
3박4일	1월6일(금)~9일(월), 2월4일(토)~7일(화)
8박9일	1월25일(수)~2월2일(목)·신학생, 2월10일(금)~18일(토)
40일	4월11일(화)~5월20일(토)

대학신입생을 위한 1일 피정(ICPE)

때: 2월11일(토) 10시~17시 / 인원: 선착순 14명
곳: ICPE 선교회(합정동) / 문의: 010-7548-6664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때, 곳: 월1회, 도쿄·북해도·가고시마·나가사키
문의: 010-3645-9028 송진옥 신부

서울대교구 젊은이 성령세미나

내용: 새 생활을 위한 성령 피정
때, 곳: 3월18일~19일,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카톨릭러스친구: 루하 / 인스타그램 DM: @ruah.fiat
문의: 010-2140-5149 청년성령쇄신봉사회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논꽃산행: 1월6일~8일, 1월27일~29일, 2월4일~6일, 2월12일~14일, 2월18일~21일, 2월24일~26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논꽃·자연순례: 1월7일~9일·1월13일~15일·1월28일~30일·2월3일~5일·2월9일~11일·2월13일~15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

2023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내용: 성모님께 특별 봉헌식, 미사, 성체조배 및 성체거동
대상: 청년 및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가족 환영)
때, 곳: 1월7일(토) 15시~18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서울성모병원)
회비: 1만원(봉헌초 포함)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꽃동네수도자·가족과 함께하는 기도 피정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 / 문의: 010-4468-5628 형제회, 010-4830-2820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때: 1월14일(토) 14시~15일(일) 15시
곳: 꽃동네사랑의영성원 / 대상: 만35세 미만 젊은이
회비: 4만원(1인실·1박2일) / 사전 예약 접수 요망(피정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현장접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수제 묵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묵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월2일부터(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인천가톨릭대 부설 교리신학원 2023년 21기 신입생 모집

2년제 과정 모집 중-홈페이지(ds.iccu.ac.kr)
문의(입학상담): 032)830-7137

30대를 위한 신앙통독(대면·비대면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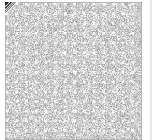
때: 3월~11월(일) 16시~18시 / 회비: 3개월에 10만원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대면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지도) 프란치스코회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수강생 모집

때: 3월8일~6월17일 매주(수) 19시~21시3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가톨릭노동자연회 풍물모임 '풍물림'

생활 스트레스, 풍물로 날리자
때, 곳: 매주(수) 19시, 노동사목회관
회비: 5만원(수시 모집)
문의(접수): 010-3239-9308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곳: 초보자 수요일만 14시·토요일 오후만 14시,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한국외방선교회 성서인문학 강좌·후원회 미사

대상: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 있는 분
때, 곳: 1월4일(수) 15시~16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4시, 소성당 / 문의: 02)3673-2528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전기(2차)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유아, 직업특수, 특수, 평생, 한국어 / 모집: 12월26일(월)~1월15일(일)
면접: 1월19일(목)-홈페이지(https://ged.catholic.ac.kr) 참조 / 문의: 02)2164-4173·4176·4787

예수회 금요기도학교

삶을 변화시키는 관상기도 배우기, 기초부터 기도강의·실습, 정기 침묵 피정
때: 3월~6월(3월3일 개강) 매주(금) 10시~13시(학기제)
곳: 예수회센터(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예수회후원회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편입생 추가 모집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과정(4학기), 2급 자격증 취득, 1급 자격증 응시 자격 취득 /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중독 포함), 노인복지학과(장기요양 포함), 정신건강복지학과(발달장애 포함)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한포) / 면접: 1월16일(월) 예정
접수: 2022년 12월26일(월)~1월8일(일)
문의: 02)3147-8781(https://welfare.catholic.ac.kr)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1월31일~3월7일 매주(화) 10시30분~19시40분(6주), 한국CLC 강의실
청년들을 위한 기도훈련	1월30일~3월6일 매주(월) 10시30분~19시40분(6주), 실시간 Zoom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내용: 성경(교의·전례·교부·교회문헌·이론) 속의 성모님·성모님 영성(사도직·발현·참된 신심), 33일 봉헌기도 / 문의(접수): 010-2724-4819 마리아학교

대면반	2월7일~7월25일 매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 회비: 16만원 계좌: 우리 1006-301-276411티없이신성심
온라인반	2월8일~7월26일 매주(수) 낮반 14시~16시·밤반 20시~22시

예수회센터 불학기 강좌

3월 개강 /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성경대학-공관복음 1	현장: 둘째·넷째주(화) 14시~16시 15분 / 동영상 녹화강의: 링크 발송	송봉모 신부
꿈을 통한 영적 치유	현장: 매주(목) 10시~12시 동영상 녹화강의: 링크 발송	홍기령 교수
영성과 철학상담-세상과 마주하기	실시간 줌(Zoom) 강좌: 매주(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모집

시스피나 시니어 여성 합창단원 모집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음악원

서울대교구 자속적인 성체조배회 자원봉사자(사무직) 모집

대상: 여성 교우로 엑셀·워드 가능한 분(연령제한 없음) / 문의: 02)773-3030 (월~목) 11시~16시

무지카사크라서울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고음악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무지카사크라서울합창단에서 창단40주년(2024) 수도원순례 유럽순회 연주를 기획하며 신입단원(남녀)을 모집합니다
지하: 최호영 신부 / 문의: 010-6369-0367 박경영 단장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남녀 가톨릭 신자 / 010-6814-6010
활동: (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1월15일(일) 오후 5시, 명동대성당
준비: 지원서 및 가톨릭성가 1곡 또는 자유곡 1곡
네이버 검색-로고스합창단-입단문의

마니파캣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대교구 마니파캣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할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 문의: 02)338-7831
때: 2월5일 15시 / 대상: 9세~13세 가톨릭(예비) 신자
연습: (화) 18시·(일) 13시-둘째주 명동대성당 10시
미사 / 오디션: 자유곡 1곡 및 음감테스트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접수: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 게시판 참조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월4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월6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1층 / 문의: 02)929-2977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적)

내용: 켈기도,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1월7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노고산성지 월례미사

때: 매월 첫째주(목) 1월5일 오전 11시
곳: 서강대학교 성이나시오성당
문의: 02)705-8161 서강대학교 교목처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과 미사
때, 곳: 1월6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1월2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은총의 갯세마니 성시간·미사 초대

대상: '예수성심의 열정적 사랑', '성령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바라는 자'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때, 곳: 1월5일(목) 19시~21시, 프란치스코 회관(정동) / 고백과 상담: 오후 6시부터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포메스심리상담소 / 문의: 010-9916-5798

인간적, 영적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가족, 부부갈등, 개인심리불안(주1회) / 담당: 노경덕 신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 전화 상담

대인·심리, 가족갈등에 대한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우울, 공황, 분노, 강박, 트라우마, 해리현상 등, 부부갈등, 비대면상담가능, 종합심리검사

2023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홈페이지(www.jjcsen.or.kr) 게시판 참조
문의: 02)726-0700, 0701 전·진·상 영성센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 봉헌(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와 축복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유관단체 알림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대상: 청년, 청소년과 동반 부모 / 문의: 02)744-0840
때: 매월 세번째(토) 2월18일·3월18일·4월15일 오후 4시(1월은 설 연휴로 쉼)
곳: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문제, 우울감, 불안감, 공황장애, ADHD 자기이해, 타인이해, 관계이해를 위한 성격검사
교육: 카페(cafe.daum.net/caritas501) 참조

직원모집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정규직 직원 모집

분야: 사회복지사 1명 / 채용시까지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서울꽃동네 신내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본 시설은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어르신들 정성껏 돌보아 주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분야: 요양보호사, 조리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02)490-2609(sinkflower3@hanmail.net)

의정부교구 행신1동성당 관리장 모집

분야: 관리장 1명(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임용 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자격증 사본(소방·가스안전 및 기타자격증 우대) / 채용시까지 접수(본당 홈페이지 참조)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직원 모집

분야: 성령새신 전국협의회 사무장(1명) / 02)777-3211
곳: 가톨릭회관(명동) / 대상: 가톨릭 신자로 사무전산업무 및 회계 가능자(성령새신기도회 유경험자)
1월10일까지 이메일(ncssa@hanmail.net) 접수
서류: 이력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가정선교회 직원 모집 / 문의: 010-4373-3217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심신이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분으로 초대율 이상, 컴퓨터 엑셀 가능하고 재정 경험 있는 분(8개월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이력서(사진),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추천서,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 주보 보신 후 등기·방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14호) 접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암사동 등)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 0명(암사동은 최대 각 4명 /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2023년 1월 8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c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서울)	010-2140-7414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 신부
마리아의 종 수녀회	1월8일(일)	분원(돈암동)	010-6826-6882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1월14일(토)	수녀원(돈암동)	010-5033-9302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1월27일(금)~29일(일)	수도원(명창동)	010-6608-3217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상의 후 결정	성북구 보문로 27길20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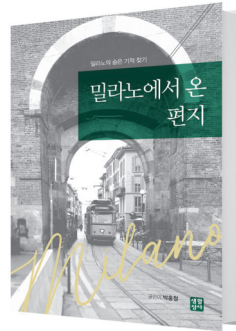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성리의 날개를 타고

김레나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240쪽 | 1만5천원
문의: 02)945-2972

‘삶으로 쓰는 복음 이야기’는 신앙인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며 하느님께 서어 어떻게 내 삶의 갈피마다 함께해 주셨는지를 풀어내는 시리즈이다. 이번 책에서는 튜칭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의 김레나 수녀가 스무 살 푸르른 청춘에 수도복을 입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오십여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간

밀라노에서 온 편지

박홍철 지음
생활성서사 | 264쪽 | 1만7천원
문의: 02)945-5987

이탈리아 밀라노의 곳곳에 숨어 있는 신앙의 보화들을 찾아내어 그 의미를 읽어 주는 책이다. ‘교의 미술 Art and Dogma’을 전공한 저자 박홍철 신부가 밀라노에서 5년여를 지내면서 밀라노와 주변 도시들에 숨어 있는 신앙의 보화들을 직접 찾아보고 스스로 체험한 바를 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신간

키아라의 선택

시모네 트로이시·크리스티나 파치니 지음
바오로딸 | 248쪽 | 1만5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하느님의 종으로 시복 절차가 진행 중인 키아라가 날마다 선택하고 걸었던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증언집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고통 속에서도 춤출 수 있었고, 기쁨과 평화를 살아간 키아라의 응답 과정을 시간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했다.



신간

영혼의 호흡

파비오 차르디 엮음
도서출판 벽난로 | 304쪽 | 1만3천원
문의: 02)572-1942

포콜라레 운동을 창설한 키아라 루빅의 생애 전체는 기도라는 황금 줄로 엮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기도는 드러나기보다는 내밀한 것으로, 수많은 저술과 단상에 흠어져 있는 기도 문구에서 드러나듯 개인적이고도 열정적인 방식으로 지속하여 삼쉴었다.



신간

마르코복음서 강해

이영현 지음
바오로딸 | 888쪽 | 3만원
문의: 02)944-0944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르코 복음서에 대한 강해집이다. 이영현 신부의 성서 연학 총서 시리즈 아홉 번째 책이며, 꼼꼼한 각주와 깊이 있고 폭넓은 보충 설명으로 마르코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있다.



신간

에파타 성가곡집 ‘나를 따라오너라’

이형진 보나벤투라 편저
에파타 | 106쪽 | 1만3천원
문의: 010-6379-1715 | 자세한 내용 및 구입은 홈페이지(www.song4god.com) 참조

‘에파타’에서 두 번째 창작 성가곡 <나를 따라 오너라>를 출판했다. 모든 곡은 서울가톨릭싱어즈가 연주한 가이드 음원이 유튜브와 음원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악보 내 큐알코드(QR) 조회를 통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별 연습이 가능하도록 꾸몄다.

2023년도 본당 사목 지침

선교의 정신으로 함께하는 본당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16,15)

서울대교구 공동체는 지난해 ‘복음화 되어 복음화 하는 교회공동체’를 사목목표로 설정하였고, 명동대성당 공동체 또한 ‘내일의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로’라는 사목 목표를 설정하여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라는 실천주제 안에서 본당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서울대교구 공동체는 올해 ‘선교의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를 사목 목표로 정하여 시노드의 주제인 ‘친교, 참여, 선교’라는 실천적 단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명동대성당 공동체는 올해 ‘선교의 정신으로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사목 목표를 두고 ‘친교의 공동체, 참여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실천주제를 지니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1. 친교의 공동체

미사성제는 하느님과 사람이 친교를 이루는 가장 탁월한 시간입니다. 미사성제 안에서 우리는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동대성당 공동체는 미사성제가 아름답게 봉헌되는 가운데 일치와 친교의 열매를 맺는 소중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미사성제가 경건하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봉헌될 수 있도록 미사 참례 전에 스스로 마음과 몸가짐으로 잘 정돈하도록 합시다. 또한 주일미사는 물론 평일미사에도 적극적으로 참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동체와 일치해 나가도록 하며, 매 미사 때마다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냉담자의 회두(回頭)를 위한 지향을 돕으로써 본당 공동체의 일치를 도모하였으면 합니다.

2. 참여하는 공동체

명동대성당 공동체에는 다양한 신심·교육 봉사 단체들이 있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2023년 명동대성당 공동체는 이러한 신심·교육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며 본당에서 행하는 교육과 신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층 더 굳건해진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체신심과 성모신심, 순교자신심, 성령신심 등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참여를 바라봅니다. 지난 시간, 봉사에 열린 마음을 지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올해는 더욱 많은 교우들이 다양한 신심활동 단체와 봉사에 관심을 지니며 본당 공동체의 신심 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3. 선교하는 공동체

명동대성당 공동체는 명동대성당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신앙의 기쁨은 무엇보다 복음 선포를 통한 선교의 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명동대성당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창세 1,10)라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 또 교회의 제일 사명인 선교의 선봉에 서 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비자 교리반을 개설하고 새 영세자의 신앙성숙을 위한 후속 교육반과 신자 재교육 교리반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명동대성당 공동체는 ‘친교의 공동체, 참여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여 세상 속에서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삶 속에서 언제나 하느님을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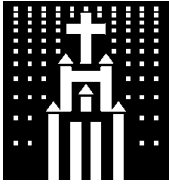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삶 속에서 언제나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언제나 하느님과 살아갑니다.

2023년 가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임신부 조 학 문 (바오로)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좌 김영우(스테 파 노) 신부
보좌 리백진(파비아노) 신부

미사 성가 | 입당 : 237 | 봉헌 : 221, 236, 210 | 성체 : 165, 156, 172 | 파견 : 238

謹 賀 新 年

恩寵의 새해를 맞이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와
교우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본당 사제단, 수도자, 사목협의회 일동 -

《 축하합니다 》

1월 4일(수)은 본당 청년 담당이신 서 엘리사벳
씨를 수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영육 간에 건강
하시도록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1월에는 「병자 영성체」가 없습니다.

● 상설 고해성사 재개

1월 2일(월)부터 상설 고해성사를 재개합니다.

● 불우이웃돕기 떡국용 가래떡 판매

명동대성당 노년봉사부와 만나회에서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아래 일시에 성당마당에서 설맞이
떡국용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판매 : 1월 7일, 14일(토요일) 오후 5시~오후 8시
1월 8일, 15일(주 일) 오전 7시~오후 7시
·문의 : 만나회장 ☎ 010-9985-3972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일시/장소 : 1월 5일(목) 오후 8시 / 대성전

● 1월 예비신자 교리반

1월 교리반 입교 시 세례성사는 7월에 거행되며, 1월
8일(주일) 오전 10시 교구청 본관 5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반	오후7:30	교구청본관 401호	김영훈 (베드로) 신부
주일반	오후4:00	교구청본관 402호	이 요셉피나 수녀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여 필수
- 전화·사전 신청 불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 준비물 : 등록비 2만원, 반영향판 사진 1매
- 첫 수업일 : 목요반(1월 12일), 주일반(1월 15일)

《 설 명절 미사 》

1월 21일(토) 오후 6시, 7시 미사와 22일(주일)
「설」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
들을 기억하는 「명절 미사」로 봉헌됩니다. 명절
미사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위령미사 예물
접수하실 분들은 1월 20일(금)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설 당일 매 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하반기(7~12월)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천

·일시·장소 : 1월 13일(금) 오후 2시 / 프란치스코 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 2022년도 제 단체 정기 감사

·감사대상 : 본당 모든 단체 (※자체 운영 단체도 포함)

·대상기간 :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1년간)

·감사일시 : 2023년 1월 14일(토)~15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사목협의회실

·구비서류 : 금전출납부, 증빙서류철, 수입지출 현황, 통장 등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2/19-12/25).....59,365,130
· 구유예물 (12/25).....11,146,000
· 주님 성탄 대축일 헌금.....68,481,000
· 감사헌금 (12/19-12/25).....3,792,000
강 마리아 / 강 제르뚜르다 / 김 노엘라
김 마르첼라 / 김 마리스텔라 / 김 발렌티노
김 베아토 / 리 헬레나 / 오 엘리사벳
박 헬레나 / 손 수산나 / 안 미카엘라
엄 발타사르 / 연 안젤라 / 오 젤뚜르다
이 데레사 / 이 요셉 / 임 사무엘 / 장 바오로
장 페트릭 / 차 실비아 / 최 이냐시오
한 헬레나 / 황 아네스 / 황 아네스 / 익명(3)

미 사 (M a s s)	주일미사 (일요일)	대성당	오전 7시, 오전 9시(영어미사), 오전 10시(아미쿠스 주일학교 미사), 오전 11시, 낮 12시(교중미사),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6시, 오후 7시(청년미사), 오후 9시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주일미사 (토요일)	대성당	오후 6시, 오후 7시(늘푸른청년미사)		고해성사 (Confession)				
					한국어	토-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화-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평일미사	대성당	월	오전 7시, 오후 6시		월	오후 1시 - 5시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화-금	오전 7시, 오후 6시, 오후 7시					
토			오전 7시						
성지미사	대성당	월-토	오전 10시		영 어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금	오후 4시 - 6시	토	오후 3시 - 5시